

기획-캠퍼스 간 전과 현황

# 캠퍼스 간 전과 허용 후 전출·전입 간극 심화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 2021년 1학기, 캠퍼스 간 전과 제약이 풀린 이후 네학기가 흘렀다. 우리신문은 달라진 전과 세척 시행 후 네학기 간의 데이터를 종합해 캠퍼스 간 전과 현황을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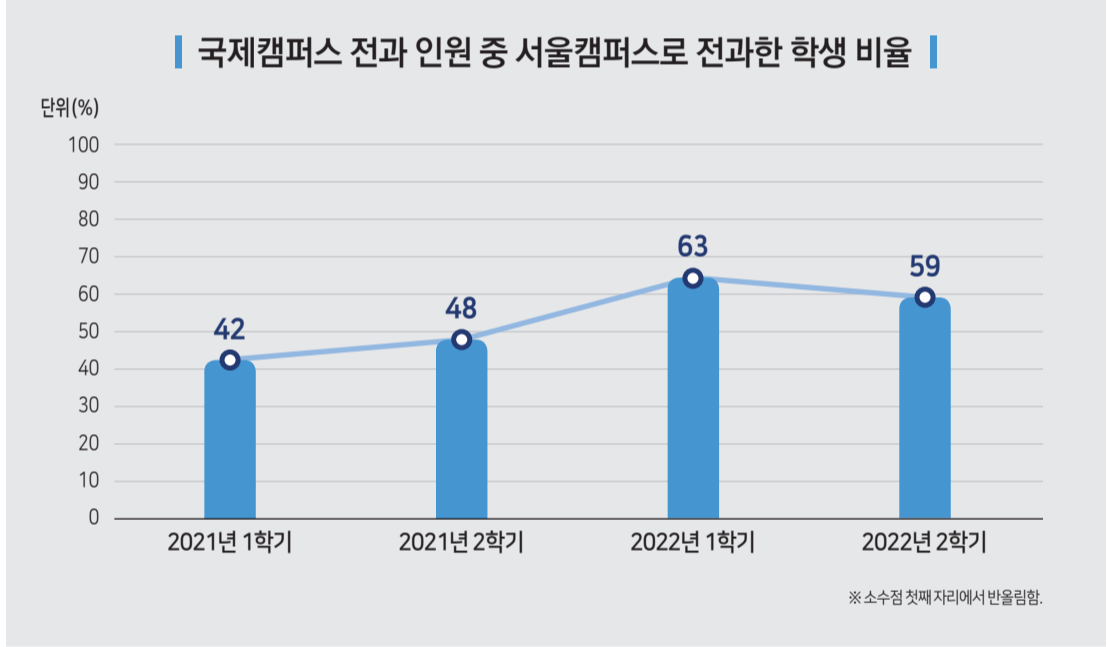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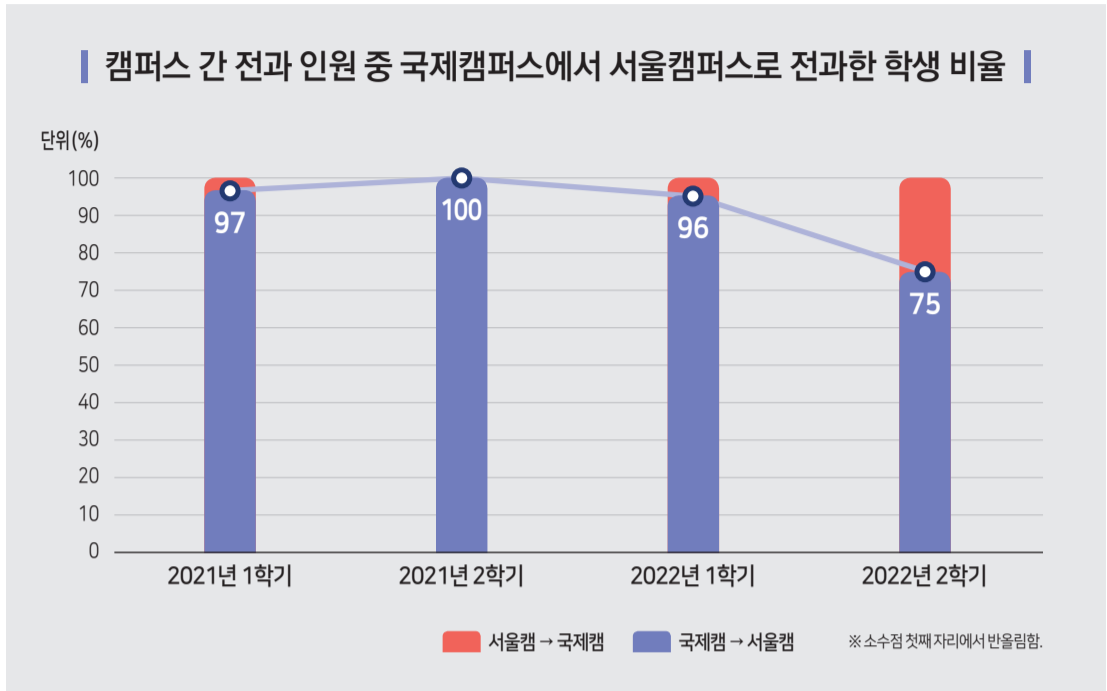
2021년 전과시행세칙 개정 이전까지, 캠퍼스 간 전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했다. 개정 이전의 전과시행세칙 제4조 3항에 따르면, '서울·국제캠퍼스 간 전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캠퍼스 간 전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전과는 소속 캠퍼스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 후의 전과시행세칙 제2조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2, 3학년은 전과 가능 학년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학칙 제8장 23조와 전과시행세칙 제4조 1항에 따르면, 전과 선발 인원은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 2학년 1학기 전출은 해당 범위 내에서 모두 가능하다. 다만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최초 전과 선발인원에서 이전까지 전과한 인원을 제외한 만큼만 선발할 수 있다. 전출 가능 인원이 학기별로 누적돼 갱신되기 때문에 학기가 지날수록 전출 가능 인원의 감소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전출 가능 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2학년 1학기에 5명이 전출했다면, 다음 학기의 전출 가능 인원은 5명으로 감소하는 식이다.

### 변화된 전과시행세칙으로 국제캠 전과 인원 대다수 서울캠으로 학적 변경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총 전과 인원은 ▲2021년 1학기 140명 ▲2021년 2학기 71명 ▲2022년 1학기 166명 ▲2022년 2학기 46명이다. 그 중 외국어대학(외대)과 체육대학(체대)은 4학기 통합 전과 인원이 각각 119명과 100명으로 가장 높다. 뒤이어 ▲공과대학(공대)(55명) ▲예술디자인대학(46명) ▲국제대학(41명)이 다수의 전과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변화된 전과시행세칙으로 캠퍼스 간 전과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캠에서 서울캠(서울캠)으로



캠퍼스 간 전과 인원 중 국제캠퍼스에서 서울캠으로 전과한 학생 비율과 국제캠퍼스 전과 인원 중 서울캠으로 전과한 학생 비율

전과하는 인원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제캠에서 서울캠 내 학과(부)로 전과한 인원은 ▲2021년 1학기 59명 ▲2021년 2학기 34명 ▲2022년 1학기 104명 ▲2022년 2학기 27명이다. 이에 비해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전과한 인원은 ▲2021년 1학기 2명 ▲2021년 2학기 0명 ▲2022년 1학기 4명 ▲2022년 2학기 9명이었다. 캠퍼스 간 전과 인원 중 국제캠에서 서울캠으로의 전과 인원의 비율이 매 학기 75%를 초과하는 것이다.

국제캠 전체 전과 인원 비율로 계산했을 때, 서울캠으로 전과하는 학생의 비율은 4학기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전과 인원의 과반이 서울캠 내 학과(부)로 전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적상 캠퍼스를 변경하는 학생이 계속해서 증가 중인 것이다. 학기별로 추산해보면 국제캠 전과 인원 중 서

울캠으로 전과한 학생은 ▲2021년 1학기 42% ▲2021년 2학기 48% ▲2022년 1학기 63% ▲2022년 2학기 59%다. 이중 전과 인원이 가장 많았던 외대만을 추산할 경우 4학기 평균 서울캠으로의 전과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

이에 관해 외대 김삼욱 부학장은 단순 학적상 캠퍼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전과 현상을 지적했다. 김 부학장은 “학생들의 타전공 심화도를 위해 전과는 필요하다”면서도 “국제캠 중 인문, 사회계열 단과대학에서 타전공 심화 차원이 아닌 단순 ‘소속 캠퍼스 변경’에 목적을 두는 일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캠으로의 전과 기류가 원 소속 학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양캠) 측도 전과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캠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학교의 지정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폭은 마련돼 있다”며 “외대도 전출 인원을 10%로 축소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캠의 전과 양상이 특정 단과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막을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교무처 학사지원팀도 “전출·전입이 특정 학과로 몰리는 문제를 사전에 예상했으나, 제도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특히 외대의 전출 및 경영대학과 정경대학의 전입 인원에 관해서는 “학칙이나 규정, 전과 운영 지침으로 통제하기에는 제도 취지나 공평한 기회 제공의 측면을 고려할 때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출 및 전입

기준에 관해 단과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단과대학에 대한 대책은 전과제도 외의 방법으로 본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며 “학사지원팀의 역할 범위 내에서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학장은 국제캠 내 교육과정 개편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김 부학장은 “국제캠 내 복수전공 활성화, 융합전공 신설 등을 통해 인문, 사회계열 취업률이 제고된다면 서울캠으로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의 전과 인원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캠 내에서 취업률이 높은 공대의 경우 지난 4학기 간 전출 인원 55명 중 8명만이 서울캠으로 전과했다. 이외에는 동일 캠퍼스 내 공학계열로 전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55명 중 20명이 공대, 11명이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전자정보대학으로 전과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양캠 간 중복계열·학과의 통합도 언급됐다. 캠퍼스 통합 및 일부 학과, 단과대의 캠퍼스 이전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돼온 문제기도 하다. 김 부학장은 “동일계열 2개 캠퍼스 체제를 동일계열 1개 캠퍼스로 통합해주는 캠퍼스 구조조정은 전과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원화 캠퍼스 체제 한국외대, 전과 문턱 비교적 높아 성균관대, 전과제 대신 계열제

한편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원화 캠퍼스 체제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도 캠퍼스 간 제한 없이 전과할 수 있다. 다만 전과 시기는 2학년 1학기만 한하며, 전출학과와 전입학과의 인원은 각각 입학정원의 10%, 5% 이내로, 비교적 소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과는 학과 단위로 시행돼 전입 학과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다. 일례로 전과 경쟁률이 높은 경영학부의 경우 공인영어성적과 이수학점, 평점 등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1996년 이후로 전과제를 폐지했다. 다만 전과제 대신 계열제를 운영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생들은 1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후 입학 시 선택한 계열 내에서 본 전공을 결정하며, 이후 별도의 전과는 불가능하다.